

## ■ 현대전자, ‘감량 인큐베이터제’ 시행을 통해 폐기물 배출량을 대폭 절감함

### ○ 현대전자는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한 ‘감량21C<sup>1)</sup> 전략의 일환으로 ‘감량 인큐베이터제’를 수립·시행함

- 감량 인큐베이터제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다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분류하여 배출원을 조사한 뒤, 최적화·감량화·재활용 등의 방안을 집중 적용함으로써 폐기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맞춤형 실행 프로그램임
- 현대전자의 경우, 무기성 오니와 폐유기용제 등이 1차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됨

### ○ 매년 2,000여 톤씩 발생해 소각 처리하던 폐용제를 전량 연료로 재이용함

- 연간 2,070톤 정도씩 발생하는 폐유기용제를 소각로의 보조연료로 재이용 하도록 전환 시행함
- 기존에는 발생전량을 위탁업체에 맡겨 소각 처리하였음
- 현재는 환경관리공단 군산사업소에 보내 운영 중인 소각로의 2차 연소를 위한 보조연료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이용율을 67%까지 올림
- 이를 통해 연간 약 2억5,8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 가능하게 됨
- 기존 폐용제의 소각처리 단가는 톤 당 168,000 원이나 프로그램 적용 후 수 집운반 비용인 톤 당 46,000 원만 지불하게 됨
- 따라서 이천사업장 2억2,000만 원, 청주사업장 3,000만 원, 가남연구소 800만 원 등을 매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### ○ 무기성 오니를 연간 16,800 톤씩 벽돌 및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함

- 이천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3개 폐수처리장에서 처리 후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를 벽돌 제조나 시멘트 원료로 제공해 재활용함
- 기존에는 오니 발생량 전부를 위탁 매립처리 하였었음
- 현재는 오니 고형화 후 소각재 벽돌 제조(전진산업)에 사용하거나 시멘트 원

1) 감량21C란 21세기를 맞는 첫 해에 Relocation(재배치), Diminishment(축소), Utilization(활용), Conservation(절약), Innovation(혁신), Gathering(수집) 등의 활동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전년 대비 2.1% 이상, 재활용율을 21% 이상 증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현대전자의 폐기물 감축 전략임

료로 재이용(성신양회)해 전체 오피스 재이용율을 85%선까지 높임

- 위탁 매립처리 할 때보다 처리단가를 톤 당 평균 17,500 원씩 절감해 연간 약 3억 원의 처리비용을 삭감할 수 있게 됨

○ 향후에도 2차 ‘감량 인큐베이터’를 적용해 사업장 전체 재활용율을 90% 선까지 높일 계획임

- 불산폐액, 폐비닐, LCD액정유리 쓰레기 등을 2차 지정해 집중 감축할 예정이며,
- 동시에 7월초부터 ‘폐기물관리 Worst-5 건물’을 선정해 공지함으로써 재이용 및 폐기물 감축 의지를 全社적으로 확대, 고양시킬 계획임

기 준 학(02-3669-4097, hiemjhki@shinbiro.com)